

Direction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Through Grace and Will in Augustinus and Luther

Hee-Young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rection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theological constructs of grace and will, as expounded by Augustinus and Luther. A resurgence of interest has been observed in character education within Christian circles in response to contemporary societal challenges. Distinct from secular approaches predominantly emphasizing behavioral conformity,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advocates for a profound internal transformation, that is, a sanctifying process orchestrated by God's divine grace. However, this necessitates the engagement of human will.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race and will, which is an interplay pivotal for comprehend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By thoroughly analyzing the theological contributions of Augustinus and Luther, both of whom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Christian, particularly Protestant, doctrine,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 and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grace and will in the formation of Christian character.

By juxtaposing between the perspectives of Augustinus and Luther, this study identifi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their theological understandings. Drawing from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 fostering existential transformation, deeply rooted in Scriptural authority, and encouraging individuals to recognize and respond to God's grace in their lives. This educational approach cultivates a stable will and virtuous character, engenders internal tranquility, and nurtures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Augustinus, Luther, character education, grace, will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를 통해 본 기독교 성품교육 방향

김희영*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요약

본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를 통해 본 기독교 성품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인성, 성품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고, 기독교에서도 성품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성품교육은 일반 인성교육과 다르게 내적 변화가 초월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에 인간의 작용, 즉 '의지'를 동반한다. 이러한 은혜와 의지는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를 규명하면 기독교 성품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한계,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성품교육의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은혜'와 '의지'에 관하여 논하고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은혜와 의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독교 성품교육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두 신학자가 은혜와 의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배경과 은혜와 의지의 특성, 의지의 변화와 성품 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두 신학자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기독교 성품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성품교육은 인간의 존재적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말씀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개인이 안정된 의지와 성품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평안하며 외적으로 타인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제어 》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성품 교육, 은혜, 의지

I. 들어가는 말

성품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기능역량뿐 아니라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요구한다. 이에 사적, 공적 기관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성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성은 “자신만의 생활스타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인데 내적 동기나 욕구와 이들의 표현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내외적 통제 간의 화해를 나타내서, 개인과 그의 환경 간에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한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또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인성교육진흥법, 법률 17472호)으로 인간의 노력, 의지에 초점을 둔다. 이 정의에서 ‘성품’이 나오는데 성품은 언어적 의미로 사람의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됨됨이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라이프 성경사전). 즉 성품이란 인성과 유사한 특성이 있고,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성품은 인성에 비해 그 정의의 범위를 신, 사물의 성질, 특성, 본성의 차원을 포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1:4).”는 말씀이 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는 주로 ‘성품교육’이라는 말을 쓴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의 노력, 의지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기독교 성품교육은 이러한 인성교육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차원을 넘어선 것을 포함한다. 기독교에서 내면, 변화, 성품의 부분은 신과의 관계, 성화된 삶,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 변화된 삶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성품교육은 인간의 내면을 가꾸는 차원과 더불어 신적 은혜의 차원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 성품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이 인간다움이고 옳은 가치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연습할 수 있다. 바람직한 행위에 대하여 격려를 받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품교육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존재적 문제로 들어간다.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 좋은 됨됨이를 이루고 성품의 결과로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은혜의 작용이 있고, 이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적 변화는 인간의 동기, 내면을 포함하며 습관, 지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성품 변화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일어나기에 기독교 성품교육은 인간의 역할과 과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의지와 은혜는 기독교 역사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주제이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의 도덕적 방종에 대해 펠라기우스가 외치는 구약의 율법, 그리스도의 모범과 인격 개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다. 루터도 에라스무스와의 논의 가운데 의지에 대한 이론을 정교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다. 모두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의 행위와 실천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적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성품교육을 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의지와 은혜의 관계는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가 되어 왔다. 스프로울(2023)은 『자유의지 논쟁』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를 비롯하여 교회사의 중요한 신학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의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연구는 기독교뿐 아니라 교육 철학,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기독교교육, 조직신학, 교회사, 예배학, 영성학에서 다루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은혜(권진호, 2011; 차중순, 1996), 의지(한병욱, 2011; 이정인, 2021), 덕목(양선건, 2016), 교육(김창환, 2003)에 관한 주제를 비롯하여 인간론(김영도, 2003)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었다. 루터도 기독교교육학(양금희, 1999), 교회사(박경수, 2017), 예배학(김경진, 2005), 영성(원종천, 2004)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의지에 관한 연구는 한주예(2021)의 비교 연구가 있으나 은혜와 의지를 논하고 성품교육까지 연결한 학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은혜와 의지에 관한 내용을 사상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고, 기독교 성품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의 생애는 기독교신학뿐 아니라 일반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왔기에 사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와 의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루터의 은혜와 의지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에 관하여 비교 분석한 후, 기독교 성품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

1.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와 의지

1) 발전 과정 및 정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와 의지에 관한 이론은 마니교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발달이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의 본질이 원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반대되는 원리라고 보았다. 그들은 인간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인간의 본성이 악에 의해 고난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Augustinus, 2011, 237). 이는 그의 도덕적인 분열 현상과 이 세상의 악과 선한 신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절한 대답을 제공했다(김창환, 2003, 215-216).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적 기독교 해석을 통해 이러한 접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인간의 의지로 신을 따르지 않고, 악을 의욕하거나 악행을 하는, 개인의 문제로 보았다(Augustinus, 2016; 이정인, 2023, 38). 이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며 초기에 『자유지론』을 저술하였다. 이는 자유의지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한 펠라기우스에 의해 지지받기도 하였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자유지론은 은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영진, 2016, 102; 양명수, 2012, 171-172).

펠라기우스(AD 354-420)는 아우구스티누스(AD 354-430)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다(McGrath, 2015, 851-852; 김영진, 2016, 84). 그는 영국의 수도사로 로마에서 활동하였는데 로마 교회의 도덕적 방종에 놀라 구약성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끊임없이 인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외치며 교회의 윤리적인 무감각과 무책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의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이런 상황을 정당화해준다고 보았다(김영진, 2016, 85).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김영진, 2016, 102).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은 의지의 자유와 죄의 본질, 은혜의 본질, 구원의 근거에 관한 것이었다(McGrath, 2015, 747).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와의 논쟁에서는 주체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악행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였지만,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은혜라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반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론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악에 빠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는 신비로 남겨둔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의 의지를 긍정하며 은혜와 함께 작용하는 인간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게 한다.

2) 은혜

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은혜에 대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주어지는 은혜, 즉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의 선행적인 공로에 따라 주어진다고 말한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면 별로 비난을 할 것이 없지만, 인간의 공로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왔다고 한다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고전 4:7)”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사와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Augustinus, 1998, 242-243). 즉, 은혜(*gratia/grace*)는 선물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는 은혜가 인간을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하게 하며, 본성을 치유시키며 선행 은혜(*prevenient grace*)와 작용 은혜(*operative grace*), 협력 은혜(*cooperative grace*)를 통해 일어난다고 본다(Augustinus, 1998b, 274, 285; Augustinus, 2003, 135; McGrath, 2015, 757-759). 고백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윤리적으로 회심을 하도록 하며 인간의 의지와 협력하여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하였다(Augustinus, 2011, 233-286).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가 의지하도록 활동하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와 협력하신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Augustinus, 1998b, 268). 그래서 우리 죄인이 믿고, 윤리적으로 회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주신 대속의 은혜이다(Augustinus, 1998a, 338).

아우구스티누스는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안의 정의, 절제, 깊은 신심, 순결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지식을 사랑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다(Augustinus, 2003, 124-125). 인간의 절제, 순결 등 영적 재산과 선한 존재가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보았다(Augustinus, 2003, 126-137). 은혜를 통해 사람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가 있어야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으로 나 행위나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Augustinus, 1998a, 302-303). 은혜는 성령의 선물로서 인간이 참된 빛에 참여하도록 바라게 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았다(Augustinus, 2008b, 23-24).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다(Augustinus, 1998b, 234-235). 견책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시는 계기로 보았는데 하

나눔은 견책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람이 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견인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Augustinus, 1998a, 332-343).

3) 의지

은혜를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작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의지를 이끄신다(Augustinus, 1998a, 358)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를 제거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악한 데로부터 선한 데로 변화시키고, 또한 인간의 선한 의지를 도와주시는 것이다(Augustinus, 1998b, 278). 우리가 행동할 때 움직이는 것은 우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에 효과적인 능력을 작용시켜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Augustinus, 1998b, 266-267).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지는 중간선이다. 의지가 선에 결속하면 위대한 선을 획득하고, 의지가 선에서 돌려 열등한 선으로 전향하면 악을 범한다(Augustinus, 1998c, 261-263).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타고난 자유를 긍정한다. 자유의지란 외적인 제재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의지는 손상되고 무능력해졌다. 죄로 인한 자유의지는 저울 한쪽에 무거운 추가 있어 기울어지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도 악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기울어졌다(McGrath, 2020, 758). 그렇기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다(Augustinus, 1998b, 208-209).

그는 첫 번째 아담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지의 첫 번째 해방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마지막 해방은 죄지을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는 견인의 능력으로서 선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마지막은 견인의 축복으로서 선을 저버릴 능력이 없는 것이다(Augustinus, 1998a, 342-343). 이러한 의지로 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견인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의 영혼은 서로 상충되는 여러 의지 사이에 갈등을 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선, 하나는 악을 지향할 수 있지만 모두 선하거나 나쁜 경우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라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Augustinus, 2011, 278-285). 이러한 인간의 ‘원하는 것’과 ‘의지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것의 구분은 얇이 실천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의 결핍이며, 인간의지의 왜곡이라고 보았다(Augustinus, 2010, 1195; Augustinus, 2011, 249-252). ‘자유지’에 의한 동의로 행위를 할 경우, 악행과 잘못을 했으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Augustinus, 1998b, 224-225). 그러나 선한 행동은 선택된 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Augustinus, 1998b, 240) 행위(deed)가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사람의 선한 일(work)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Augustinus, 1998b, 288-290).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며(Augustinus, 1998b, 209),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받아들임으로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어 참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심종혁, 이영남, 2015, 221-222).

이러한 의지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간의 삼위일체 유비(기억, 지성, 의지) 중 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에서 네 가지 형상, 물체의 형상, 감각 기관에 생긴 형상, 기억에 저장된 형상, 이성(정신의 눈)에 맺힌 형상을 통해 영혼이 외부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말한다(Augustinus, 2015, 837-857; 한병옥, 2015, 584-587). 의지, 정신의 지향은 시선을 고정하고 대상에 대한 지향과 욕구를 연결하여 기억에 저장된 형상을 원하거나 피하려 한다(Augustinus, 2015, 845; 한병옥, 2015, 588). 또한 의지는 이성(정신의 눈)을 기억 안의 어떤 형상으로 향하게 해서 이 둘을 결합시킬 수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다(Augustinus, 2015, 887-888). 이는 의지가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전 이미 대상에 대한 지향·욕구와 회피를 통해 물체, 감각 기관, 기억, 이성에 맺힌 형상에 작용하는 것을 보게 한다. 또한 의지는 지향성과 욕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식론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윤리적이며 실존적인 차원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Augustinus, 2015, 851-853; 한병옥, 2015, 588 참조). 의지는 감정과 관계가 있어 욕망이나 기쁨, 두려움과 슬픔을 추구하고 기피하는 대상에 따라 생긴다(Augustinus, 2004, 1451). 즉, 의지는 지향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감각기관, 기억, 이성에 작용하여 우리로 판단하고 존재하고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 의지의 변화와 성품 형성

펠라기우스에 반하여 은혜를 강조하고, 모범과 계명 준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것을 부인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행위,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성경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과 같이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았다(Augustinus,

1998b, 246) 율법은 죄를 밝히고 은혜로 전향하도록 사람을 움직이는데(Augustinus, 1953, 385-406; 권진호, 2011, 62에서 재인용) 성령이 없는 율법의 가르침은 죽이는 의문이지만(Augustinus, 2008b, 24-25) 영은 살린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로 자유하게 하여 기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Augustinus, 2008b, 58). 성령은 율법의 성취인 사랑을 마음에 심어주어 믿음의 법을 갖고 생명을 주는 영을 사랑하게 한다. 성령은 새로운 언약을 심비에 기록하고(Augustinus, 2008b, 59, 67-68), 심비에 쓰인 율법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널리 퍼지게 하고(Augustinus, 2008b, 68), 사랑으로써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의로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며,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Augustinus, 2008b, 69).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서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적인 사람이 매일 같이 갱신되는 것이다(Augustinus, 2008b, 70).

자유의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반응하도록 한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죄의 지식을 갖게 되며,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죄의 질병으로부터 영혼의 치유함을 받으며, 의지의 자유를 얻고, 의를 사랑하게 되어 의를 사랑함으로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Augustinus, 2008b, 95-96).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타락한 상황에서는 영원한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 지상의 일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이은선, 2015, 321-324). 여기에서 그가 의지의 작용과 은혜, 믿음, 지상의 일에 대한 지식을 긍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강연을 듣고, 성경을 읽고자 한 것, 성경을 읽고, 죄에 대하여 탄식한 것, 성경을 펼쳐 읽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은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주체의 의지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의 강연에서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듣고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현현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다. 의지는 우리의 인식과정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대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위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올바른 것을 지향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피조물을 통해 신지식을 가져도 지혜의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고 말한다(Augustinus, 2008b, 45-47).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은 지혜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단순한 ‘~에 대한 앎’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앎을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환시 체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고(Augustinus, 2011, 306)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았

다(Augustinus, 2010c, 105-106). 그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보았다(Augustinus, 2011, 457 참조).

이러한 지혜가 영혼 안에서 성장하면 미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이 있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희망으로 볼 것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 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응시가 완전한 덕이며, 영혼 안에 있는 인식이고, 인식하는 주체와 대상, 즉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만나 형성된다고 보았다(Augustinus, 2018, 77-79).

이러한 사랑이 바르게 배향하는 것은 유덕한 것(caritas)이고, 의지는 올바른 배향과 위치에 자리하며 실천을 반복하면서 안정된다. 의지가 그 목적에 맞게 행위하게 하는 성품이자 능력이 되는 것이다(양선건, 2016, 47-49).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는 움직임으로, 행위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선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 보았다(Augustinus, 2010b, 1449-1451). 즉, 신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은 존재하는 덕의 구속과 안내를 받아 자신의 영혼을 규제함으로 덕스러워진다(Augustinus, 2010c, 123). 덕의 빛에, 진리와 지혜에 순응하면서 덕스러워지고, 진리와 지혜를 본받기를 결심한다(Augustinus, 1998c, 261).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았기에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Augustinus, 1998b, 272-274).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도 자신처럼 완전한 사랑을 통해 신을 사랑하고, 신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포함한다고 보며(양선건, 2016, 49-50), 진정한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 덕목은 이웃으로 최고선, 신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 덕의 신적 기원성, 신에 대한 지향성을 밝히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바르게 배향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시하는 덕은 고대의 4주덕(사려/실천적 지혜, 정의, 용기, 절제)이며(Augustinus, 2010a, 60), 겸손과 순종,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사상은 중세와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루터가 1505년 7월 서원하여 들어갔던 수도회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회의 개혁과였다. 루터가 이후 종교개혁을 하고 의지와 은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은 그의 사상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지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루터에게는 의지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

1. 루터의 은혜와 의지

1) 발전 과정 및 정의

루터의 은혜와 의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상황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로마 교회의 방종에 놀라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윤리적 책임을 말하였는데 에라스무스도 『우신예찬』을 저술할 정도로 가톨릭교회의 권위주의와 형식주의,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교회의 타락 가운데 에라스무스가 강조한 것은 인간의 ‘의지’이며, 루터가 강조한 것은 ‘은혜’이다. 에라스무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정신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1년 전 1516년에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하고, 이는 가톨릭교회에도, 루터의 신학과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의 폐해를 지적하며 루터가 좋은 일을 하고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인간론의 차이로 루터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회론』의 책을 쓰고, 이를 통해 루터는 상처를 받고 이듬해에 『노예의회론』을 쓰며 이를 반박하면서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다. 여기에 루터의 인간론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은 은혜의 의존성과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펼쳤던 논쟁을 다시 보게 한다(Sproul, 2023, 111). 물론 루터도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시는지, 왜 성령은 인간의 삶에서 악한 영을 추방하지 않는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의해 그렇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으로 보고, 인간의 삶의 한계를 인정한다(Watson, 2011, 44).

2) 은혜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가 “오직 은혜”인 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개혁의 핵심으로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루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에서 부과된 모든 임무를 다하는 한편 구원 문제에 해답을 얻으려는 몸부림을 하였다. 스킨라 철학도, 로마 순례도 루터에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 평화와 안정이 없었다(김성식, 2017, 95-97).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중재한다고 하는 성례 제도, 특히 고해 성사도 루터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진노하고, 복수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슈타우피츠가 루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를 말하며 안심시키고, 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하여 루터가 다른 사람에게 간직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였다(Bainton, 2017, 82).

루터는 2015년 시편과 로마서 강의를 하였다. 시편 22편을 보며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련은 죄인이 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화해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십자가에서 용해된 것을 알게 되었다(Bainton, 2017, 82-89).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에게 낯설은 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Luther, 2021, 37).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공로가 적당히 합쳐져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은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 우리를 향하여 지니시는 인자, 호의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 위에 성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기쁘고 활기차게 만들며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에서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Luther, 2021, 19-22).

루터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진노의 하나님 이미지, 자신의 구원과 선택받음에 대한 불안, 죄된 마음과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양면성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요 확신이다(박경수, 2017, 71).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 결단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재정향과 방향 설정을 뜻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중요한 원천과 중심을 발견하는 생존 방식인 것이다. 믿음은 결단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결단은 은혜 안에 놓인다. 하나님의 행위의 신비, 은혜는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결단의 능력의 재지향을 병합하고 포괄한다. 즉, 믿음은 사람의 결단 능력, 의지보다 무한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의지와 인간의 자발적인 측면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Dillenberger, 2005, 31).

루터는 선행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은혜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선행이 믿음으로부터 생기고, 행위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는 것이다. 좋은 나무로부터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의 중대함과 기쁨을 알지 못한다고 보았다(Dillenberger, 2005, 31).

에라스무스도 전에는 인간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완전히 무능력해진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후 『자유지론』에서 인간의 의지가 영원한 구원에 속해 있는 것, 즉 그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들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Luther, 2011, 242).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구원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 노력, 의지,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와 역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약속하셨

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구원을 위해 미약하지만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서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Luther, 2011, 194). 즉 루터는 ‘오직 은혜’를 강조한 것이다.

3) 의지

에라스무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고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복종하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의 공적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Erasmus, 2011, 129). 그는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손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절름발이가 되어 은혜받기 전보다 악에 기꺼이 치우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Erasmus, 2011, 88).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6:44)라는 구절에서 소년이 사과를 보여주면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오고, 양들이 푸른버드나무 이파리를 보여주면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Erasmus, 2011, 123-125). 에라스무스에게 자유의지란 사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들에 전념하거나, 이런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을 의미한다(Erasmus, 2011, 84).

그러나 루터는 자유는 그 완전하고도 적합한 용어의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다른 누구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다(Luther, 2011, 200).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불변의 필연성으로 스스로 변화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 행위는 인간의 능력으로 없애거나 억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자발적으로 준비된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Luther, 2011, 196-197).

이러한 점에서 루터에게 자유의지는 인간 이하의 존재들을 고려해서 허용된 것, 즉 자신의 능력과 소유와 관련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방치해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자유 의지의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나 사탄의 의지에 종속된 포로요 백성이요 노예라는 것이다(Luther, 2011, 202). “자유의지는 우리를 원죄로 데려갔고, 사망을 불러들였습니다 ... 나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젖을 짜고 집을 짓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 인간의 의지는 회심과 칭의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Luther, 2019, 188-189) 물론 이러한 의지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지배당한다고 하였다(Luther, 2011, 202).

루터에게 인간의 의지란 멩에를 맨 짐승처럼 둘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신다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좇아 행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 위에 올라타다면 인간의 의지는 사탄이 원하는 바를 좇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 기수를 선택할 수 없고, 오직 그 기수에 의해 지배받는다(Luther, 2011, 198).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기수의 의지에 반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영에 반하여 행동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세상의 신이 지배하면 세상 신의 의지에 포로가 되어 세상 신이 뜻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좇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는 전혀 자유의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Luther, 2011, 197-199). 루터에게 악은 좀 더 실체적인 차원이다. 루터는 악의 세력을 의인화시켜서 사람과 대면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력으로서 묘사한다(Althaus, 2011, 238-240).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한 동시에 속되며,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았다(Luther, 2005c, 180). 인간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것이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하는 칭함의 사건을 통해서 원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 있다(양금희, 1999, 299-300). 따라서 기독교인은 '의인'과 '죄인'의 양면성 속에서 매일 새롭게 죽고, 다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의지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삶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양금희, 1999, 31-34).

2. 의지의 변화와 성품 형성

루터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다고 선한 행위를 경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행위는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신앙을 표현하는 통로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통하여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의지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숨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어 강제가 아니라 순수한 의지와 기질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의욕을 보인다. 그래서 의지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는 반대에 직면해도 자발적으로 선을 기뻐하고 선을 향해 나아간다(Luther, 2011, 197). 의지의 변화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돌보는 자로 새로운 소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칭의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적 의지를 기뻐하며 신적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자발적으

로 맞추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육체는 성령에 대항하여 투쟁하기에 죄에 대하여 싸우고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명령, 사도적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Althaus, 2017, 300).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밖의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와 빛과 평화와 의와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영광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다(Luther, 2005b, 96-97). 사람은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평화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 영혼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으면 이 말씀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Luther, 2005b, 100-101).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할 때 영혼은 하나님을 참되고 의롭다고 여긴다. 이렇게 할 때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된다.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이 다루어지도록 허용한다(Luther, 2005b, 102-103).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와 죽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Luther, 2005b, 103-104).

루터는 인간이 자신의 영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신앙에 의해 풍부하게 충분히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요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현세에서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해야 하며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금식, 절제, 노동 등의 훈련,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로써 겉사람은 속사람과 신앙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신앙에 항거하지 않고 속사람을 휘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Luther, 2005b, 111-113).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맞추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선한 행실을 연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 성령의 미덕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신앙에 의하여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행이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Luther, 2005b, 114). 루터는 이러한 육을 죽이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는 삶의 방식을 우리 자신의 고유의 의라고 말한다. 우리가 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적 의, 첫 번째 의와 더불어 그것을 행하기에 두 번째 의라고 말한다(Luther, 2005a, 136).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에 작용하여 선을 행하게 하며 의를 이루는 것이다.

루터는 시련도 강조하였는데 시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시련에서 인간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된다고 보았다(Althaus, 2017, 43-49 참조). 루터에게 나타난 미덕은 믿음, 사랑, 순종, 용기, 구제, 나눔, 자비 등으로 볼 수 있겠다.

IV.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

1. 공통점과 차이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루터의 은혜와 의지에 관한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많은 공통점을 가져다준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모두 은혜가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로 본다. 인간의 행위 공로로 인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러한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에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의 역할이다. 그러나 의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선'을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고, 구원과 관계된 것을 행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의 성향과 같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죄의 경향을 갖게 되어 죄를 짓고, 루터는 동물의 기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악한 영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행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하나님을 응시함으로 좋은 성품이 형성되고, 루터는 믿음으로 전가된 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존재의 변화를 받아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성품을 갖는다고 보았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말씀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할 수 없음'의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말해준다. 그러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어 선하신 하나님께 지향하도록 한다. 루터에게 말씀은 죄를 각성하게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이루게 된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말씀은 은혜 안에서 의지를 통해 성장하게 하며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한다.

말씀은 특히 윤리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으로 변화시키며 성자의 삶을 살게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과 피조물을 통한 지식이 있어도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과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죄책감에 불안해했던 루터는 로마서 1장의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죄인을 벌하는 하나님은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루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복음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선한 행실에 대하여 알고 선행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었다.

그러나 악의 문제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차이가 나타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았으나 루터는 악을 인간이 싸워야 할 실체로 묘사하고, 의인화하

였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좋은 상태로 변한다고 하며(Augustinus, 2011, 444) 하나님에 대한 응시로 미덕을 함양하는 것을 보았다. 반면 루터는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제어하며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련’도 신앙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죄인과 의인 속에서 악에 대항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의지를 ‘중간선’이라고 보고,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칭한 것에서 루터에게 의지의 타락과 수동성이 더 강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인간의 의지는 주체자로서 믿음에 반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덕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와 표시로,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은혜와 의지가 나타나는 공통된 성경구절이 있다.

2.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성경 해석을 통해 본 은혜와 의지 개념 비교

1) 은혜와 의지가 만나는 성경 구절 해석-스가랴 1장 3절을 중심으로

은혜와 의지가 함께 나타나는 성경구절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뿐 아니라 펠라기우스주의자와 에라스무스가 함께 다루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가 인간의 의지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펠라기우스와 에라스무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슌1:3)”

여기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는 조건문이 있고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즉,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에라스무스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 그리하면” 말씀을 통해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며 공로, 인간의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돌이킴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돌이켜진다는 것을 말한다(Augustinus, 1998b, 236). 루터는 “돌아오라 ...

그리하면”은 “자기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나 “노력하다”가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말해준다고 보았다(Luther, 2011, 272).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에서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펠라기우스주의자와 에라스무스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보았다. 루터는 “돌아오면 ... 그리하면 ... 돌아가리라”는 율법의 정점과 은혜의 용법을 함께 보여준다고 하였다(Luther, 2011, 272). 마땅히 행할 바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다. 네 학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작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의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은혜를 보상으로 보는 것과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선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의지가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을 지향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인물	의지 차원-‘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해석	은혜 차원-‘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해석	출처 문헌
펠라기우스주의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Augustinus, 1998b, 236)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께서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Augustinus, 1998b, 236)
에라스무스	이는 자유의지의 노력이다.	자유의지에 대한 노력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Erasmus, 2011, 94)
루터	이 말씀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해준다. 율법의 용법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표현이다. 은혜의 용법	(Luther, 2011, 272-273)

2) 에스겔 18장에 나온 ‘돌이킴’에 관한 해석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고 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에스겔서 18장에 ‘돌이킴’에 대하여 성경구절이 나와 있다.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봄으로 그들의 회개, 하나님으로의 지향에서 은혜와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겔 18:2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 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1-32).”

아우구스티누스는 돌이킴에 대하여 에스겔 18:31-32절 말씀을 시편 95:8, 시편 80:3, 에스겔 36:26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자유의지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에스겔에서 말씀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 시편 80편 3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친히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의지는 죄로 인해서로부터 벗어났지만 은혜로 선한 의지를 지니게 되고 선한 의지가 확대되면 계명을 성취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는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을 알도록 하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에 충분한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명령받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Augustinus, 1998b, 263-264).

루터는 에스겔 18장 21절을 중심으로 에라스무스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돌이켜 ... 행하면”은 악인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루터는 시편 30편 5절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의 말씀과 에스겔 18장 23, 32절의 “나는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고 그가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통해 ‘돌이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생명, 평화와 구원을 담보하는 은혜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도우시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 그것을 들어 올리셔서 죄를 뉘우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Luther, 2011, 273-275). 하나님의 명령을 은혜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돌이키라”를 비롯한 “하라”, “행하라”, “지키라”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씀하는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 모두 이는 우리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 의지해야 하는 바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터는 이 말씀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았다. 이러한 돌이킴, 선을 지향하는 것의 결과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선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한 성품이 형성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은혜와 의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을 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성품교육은 행위 이전에 의지의 바른 지향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혜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존재적 변화를 이루며, 의지의 변화를 통한 성품 형성에서 성경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한 성품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V. 기독교 성품교육의 방향

기독교 성품교육은 존재적 변화에 우선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있어 타락한 의지는 한계를 가지고 악을 지향하게 된다. 그렇기에 선을 행하는 데,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데에 자유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간의 좋은 됴됨이, 내적 안정성, 선한 것을 의지하고 지향하기 위해서는 본성의 변화, 존재적인 변화를 생각하며 성품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며 하나님을 응시하며 선을 알고 성품을 형성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목상하는 가운데 좋은 성품을 알고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면 덕을 함양하고 공공의 선에 기여할 수 있다(장신근, 2015, 152-153). 이를 위해 신앙의 요소들이 학습자의 삶의 요소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과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원석, 2017, 94-95). 그리고 봉사과 희생을 삶 속에서 사회 안에서 보임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성중, 2020, 56).

이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지혜를 배우고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느낀 경험이 있었는지 성찰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삶 가운데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품성찰과 성품일기를 쓰도록 한다.

성품성찰은 인생의 연대기적 상황 가운데 가장 기뻐할 때와 가장 슬펐을 때,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내적 심리와 정서, 건강 상태,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의 상태와 그렇지 못한 때의 상태를 비교 분석하며 무엇이 원인인지, 안 좋은 성품을 가졌다가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된 도약의 계기가 있었는지, 침체가 있었는

지, 나의 좋은 성품 형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강화시키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나의 내면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성품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3개월, 혹은 6개월, 1년 동안 좋은 성품 형성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며 성품일기를 작성한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좋은 성품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일기를 통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좋은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기독교 성품교육은 말씀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다가왔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의 절제하지 못한 삶을 변화시켰다. 루터에게도 복음적 경험은 말씀을 통해 이뤄졌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말씀은 “단정히 행하라”이고, 루터에게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모두 로마서의 다른 말씀이었지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말씀으로 그들은 변화되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고, 의지가 선을 지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었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알게 하였으며, 선을 지향하게 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였다. 선한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성품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를 수 있다. 먼저 어린 아이의 경우 인지적-직관적 능력, 언어적-비언어적 능력, 이성적-영성적 능력이 통합되어야 한다(유선희, 2012, 192).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아동부의 경우 성경을 단순히 암기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본문에 참여하고 그 의미를 의문시하고, 현재의 삶의 이슈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n, 2024, 145). 하나님의 성품, 복음적 메시지에 대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삶과 연계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주도성 아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경험된 신앙을 반추하고 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정서와 감정을 깨닫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신현호, 2022, 291). 또한 복음과 삶의 이슈가 만나는 전생애주기적 제자양육이 필요하다. 현재적 삶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복음적 진리를 적절히 연결하여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신형섭, 2023, 99).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자기의 본마음을 투명하게 감지하도록 교육한다(이규민, 2013, 159). 이해와 사랑과 긍휼과 열정, 희생, 봉사로 머리, 가슴, 손의 냉철함, 따뜻함, 신속함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한다(김도일, 2009, 50).

즉, 연령별로 적합한 성품의 덕목을 선별한 후, 연령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야기, 해석과

반성적 성찰, 공감-을 통해 배우도록 하며, 다양한 장에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펠라기우스와 에라스무스 모두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재판을 받고 에라스무스가 루터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였으나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은혜를 받게 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지의 타락을 고백하여도 그들의 자아나 학식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χάρις)’로 이는 선물, 호의, 축복, 감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은혜는 영적 은사,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 고난을 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롬 8:32)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이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빌 1:29)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볼 수 있다(정은찬, 2024, 49-52). 루터가 시련을 하나의 방법으로 본 것처럼 말이다. 일상의 기쁨과 감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바로 기독교 성품교육은 하나님의 베푸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감사의 성품을 함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감사기도 5가지 하기, 감사의 고백하기,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등의 다짐을 하고 시행할 때, 삶 가운데 베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교회, 가정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 시간과 종교학, 도덕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학교에서도 교육할 수 있다(박상진, 2015. 40-41). 교사들이 삶의 난제들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타인에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다(김효숙, 2011, 467).

VI. 나오는 말

이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를 통해 본 기독교 성품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면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하며 관련된 결과들도 많이 있다. 또한 ‘습관’과 ‘훈련’도 사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여러 책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에게 나타난 은혜와 의지는 인간을 꼭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은혜에 의한 의지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둔다. 이들이 신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의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함의 가능성, 좋은 성품 형성의 가능성,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품 형성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나약하고, 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은혜 안에서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고 타인에게 좋은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성품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품교육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독교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학교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받아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 성품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개인은 안정된 의지와 성품을 형성하여 내적으로 평안하며, 외적으로 타인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영향을 주고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원석. (2017).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학적 태도- 벨쉬와 켈의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2, 71-106.
- [Koh, W. S. (2017). Christian Educational attitude in the postmodern era - Focusing on the thoughts of Belsch and Keck.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2, 71-106.]
- 권진호. (2011). **성 어거스틴의 은총론 연구**. 서울: 기독교문선교회.
- [Kwon, J. (2011). *A Study on St. Augustine's Theory of Grace*. Seoul: Christian Moonsun Mission.]
- 김경진. (2005). 루터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예배개혁. **기독교문화연구**, 10.
- [Kim, G. J. (2005). The Reformation of the Worship Service in the Korean Church from the Viewpoint of M. Luther. *Christian cultural studies*.]
- 김도일. (2009). 파편화된 인간성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1, 19-59.
- [Kim, D. I. (2009). Christian education for integrating fragmented huma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19-59.]
- 김성식. (2017). **루터**. 파주: 한울.
- [Kim, S. S. (2017). *Luther*. Paju: Hanul Press.]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영도. (2003). 기독교적 인간론 -어거스틴의 펠라기우스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20, 107-145.
- [Kim, Y. D. (2003). Christian Humanism: Focusing on Augustine's Pelagianism Controversy. *Theology and Ministry*, 20, 107-145.]
- 김영진. (2016).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 -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 **대한철학회**, 137.
- [Kim, Y. J. (2016). Confrontation and Controversy Between Augustine and Pelagius: Focusing on Free Will.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37.]
- 김창환. (2003). 아우구스티누스.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 (Eds.), **위대한 교육 사상가 I**. 서울: 교육과학사.
- [Kim, C. H. (2003). Study on Augustine. In Yonsei University Educational Philosophy Research Society (Eds) *Great Educational Thinkers I*. Seoul: Kyoyookbook.]
- 김효숙. (2011). 형식적 교사교육에서 비형식적 학습공동체로의 확장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7, 443-472.
- [Kim, H. S. (2011). A study on the expansion from formal teacher education to informal learning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7, 443-472.]
- 박경수. (2017). **종교개혁 핵심문답 Q&A 33**. 서울: 한국기독교서회.
- [Park, G. (2017). *Reformation Key Talk Q&A 33*.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박상진. (2015). 기독교학교에서의 도덕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4, 13-47.
- [Park, S. J. (2015). Moral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4, 13-47.]
- 신현호. (2022).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0, 267-302.
- [Shin, H. H. (2022).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metaver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0, 267-302.]
- 신형섭. (2023). 회중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3040세대에 대한 교육목회의 함의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4, 81-106.
- [Shin, H. S. (2023).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3040 generation in the view of the discourse on understanding congreg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4, 81-106.]
- 심종혁, 이영남. (2015).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체험과 영성신학적 함의, **신학전망**, 190, 203-240.

- [Shim, J., & Lee, Y. (2015). Augustine's Spiritual Experience and Theological Implications. *Theological Perspective*, 190, 203-240.]
- 양금희. (1999).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 [Yang, G. (1999). *Religious Reformation and Educational Thought*. Seou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양명수 (2012). **성명에서 생명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Yang, M. (2012). *From Name to Lif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양선건. (2016). 아우구스티누스의 덕과 덕의지, **철학탐구**, 41, 33-60.
- [Yang, S. G. (2016). Augustine's Virtue and Virtuous Wil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41, 33-60.]
- 원종천. (2004). 은혜의 수단에 나타난 루터의 영성. **ACTS 신학과 유교**, 8.
- [Won, J. (2004). The Spirituality of Martin Luther in the Means of Grace. *ACTS Theology and Confucianism*, 8.]
- 유선희. (2012). 제롬 베리맨(Jerome W. Berryman)의 어린이영성교육 연구-인지주의 어린이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기독교 교육논총**, 32, 167-197.
- [Yoo, S. H. (2012). Study on children's spirituality education of Jerome W. Berryman: Critical reflection on cognitivism of children's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167-197.]
- 이규민. (2013). 세계화 시대를 위한 기독교. **기독교교육논총**, 33, 145-173.
- [Lee, K. M. (2013). A proposed direction for Christian family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3, 145-173.]
- 이은선. (2015).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의 12-14권에서 지식과 지혜의 관계, **신학논단**, 79, 313-344.
- [Lee, E.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Wisdom in Volumes 12-14 of Augustine's Trinity. *Theological Form*, 79, 313-344.]
- 이정인. (2021). “도덕 실천에서 의지의 역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8권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연구**, 33(1), 55-77.
- [Lee, J. (2021). The Role of Will in Moral Practice: an analysis of Augustine's Confessions Book 8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1), 55-77.]
- 이정인. (2023). 도덕형성의 잃어버린 차원: ‘삶의 방식으로서 철학’으로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인격교육**, 17(4).
- [Lee, J. I. (2023). The Lost Dimension of Moral Formation: An Analysis of Augustine's Confessions as ‘Philosophy as a way of life’. *Character Education*, 17(4).]
- 장신근. (2015). 화해와 치유의 생명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온전성을 지향하는 지역 교회 교육 연구: “공적 교육 공동체 모델”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42, 133-168.
- [Jang, S. G. (2015). A study on local church education seeking the integrity of the kingdom of God: Focusing on a “model of public educational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133-168.]
- 정은찬. (2024). 신약과 교회 교육 (6) - 은혜를 증언하는 교회 (1): 은혜의 기본 의미. **교육교회**, 536호.
- [Jeong, U. C. (2024). New Testament and church education (6) - Church that testifies to grace (1): The basic meaning of grace. *Education Church*, (536).]
- 한병욱. (2015).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감각’과 ‘기억, 의지’의 비교 연구- □자유지론□2권과 □삼위일체론□11권을 중심으로 - **철학논총**, 82(4), 575-598.
- [Han, B. O. (2015). A Comparative Study of Augustine's ‘Inner Sense’ and ‘Memory, Will’: Focusing on ‘Free Will’ Volume 2 and ‘Trinity Theory’ Volume 11. *Journal of Philosophy*, 82(4), 575-598.]
- 한주예. (2021). 마르틴 루터의 ‘노예지론’ 연구: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32.
- [Han, J. (2021). A Study on Martin Luther's On the Bondage of the Will: With a focus on his arguments with Erasmus. *Christian Philosophy*, 32.]
- An, J. (2024).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Bible didactics by Horst Klaus Ber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7, 127-150.

- Althaus, Paul. (2017). **마르틴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Althaus, P. (2017). Martin Luther's Theology (Lee H. Trans.). Paju: Christian Digest.]
- Augustinus, A. (1998a). 비판과 은총에 대하여. **은총론 4**, 296-363.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Augustinus, A. (1998a). On Criticism and Grace. In P. Schaff (Ed.), *Saint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Cha C. S.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Press.]
- Augustinus. (1998b). 은혜와 자유 의지에 관하여. Schaff. **은총론 4**. 차종순 역. 217-291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Augustine, A. (1998b). On Grace and Free Will. In P. Schaff (Ed.), *Saint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Cha C. S.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Press.]
- Augustinus, A. (1998c). 『자유 의지론』. 칠곡: 분도출판사.
- [Augustine, A. (1998c). *De libero arbitrio*. Chilgok: Bundo Publishing.]
- Augustinus, A. (2008a). 본성과 은총에 관하여. **은총론 2**, 차종순 역. 134-25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Augustinus, A. (2008a). On Nature and Grace. In P. Schaff (Ed.), *Saint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Cha C. S.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Press.]
- Augustinus, A. (2008b). 영광 의문에 관하여. **은총론 2**, 차종순 역. 15-125.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Augustinus, A. (2008b). *De Spiritu et Littera*. In P. Schaff (Ed.), *Saint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Cha C. S. Trans.). Seoul: Korea Presbyterian Press.]
- Augustinus, A. (2010a). **어거스틴의 행복론**. 박주영 역. 경기도: 누멘.
- [Augustine, A. (2010a). *De Beata Vita* (Park J. Trans.). Seoul: Numen.]
- Augustinus, A.(2010b). **신국론: 제11-18권**. 성염 역. 경북: 분도출판사.
- [Augustinus, A.(2010b). *De Civitate Dei: Volumes 11-18* (Seong, Y. Trans.). Waegwan: Bundo Publishing.]
- Augustinus, A. (2010c). “자유의지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박일민 역. 서울: 아웨의 말씀.
- [Augustinus, A. (2010c). *De Libero Arbitrio*. (Park, I. Trans.). Seoul: Word of YHWH.
- Augustinus, A. (2011).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과 신앙편람**. 원성현, 조용석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Augustinus, A. (2011). *Augustine: Confessions and Enchiridion*. Seoul: Duranno Press.]
- Augustinus, A. (2015).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경북: 분도출판사.
- [Augustinus, A. (2015). Augustinus's Trinity Theory (Seong, Y. Trans.). Gyeongbuk: Bundo Publishing.]
- Augustinus, A. (2018). **아우구스티누스 독백**. 성염, Trans. 서울: 분도출판사.
- [Augustinus, A. (2018). Augustinus's Monologue (Seong, Y. Trans.). Seoul: Bundo Publishing Company.]
- Bainton, R. (2017). **마르틴 루터**.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Bainton, R. (2017). Martin Luther (Lee J. T. Trans.). Seoul: Lifebook.]
- Erasmus, D. (2011). 자유 의지론. **루터와 에라스무스 : 자유의지와 구원**. 이성덕, 김주한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Erasmus, D. (2011). Free Will Theory. In Rupp E. G. & Watson P. S. (Eds.),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Lee S.-D. & Kim, J.-H. Trans.). Seoul: Duranno Academy.]
- Luther, M. (2005a). 두 종료의 의. **루터 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Luther, M. (2005a). De Duabus Lustitiis. I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Lee H. Trans.). Goyang: Christian Digest.]
- Luther, M. (2005b). 그리스도인의 자유. **루터 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Luther, M. (2005b). De Libertate Christiana. I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Lee H. Trans.). Goyang: Christian Digest.]
- Luther. M. (2005c). 갈라디아서 주석. **루터 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Luther, M. (2005c). In Epistolam Sancti Pauliad galatas Commentarius. I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Lee H. Trans.). Goyang: Christian Digest.]
- Luther, Martin. (2011). 노예 의지론. **루터와 에라스무스 : 자유의지와 구원**. 이성덕, 김주한 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Luther, M. (2011). Slave Will Theory. In Rupp E. G. & Watson P. S. (Eds.),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Lee S.-D. & Kim, J.-H. Trans.). Seoul: Duranno Academy.]
- Luther, M. (2019). **루터의 탁상담화**. 이길상 역. 파주: CH Books.
- [Luther, M. (2019). *Martin Luther's Table Talk* (Lee G.-S. Trans.). Paju: CH Books.]
- Luther, M. (2021). **루터의 로마서 주석**. 박문재 역. 파주: CH박스.
- [Luther, M. (2021). Commentary on Romas. In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Lee H. Trans.). Paju: CHbooks.]
- Sproul, R.C. (2023). **자유의지 논쟁**. 서울: 생명의말씀사.
- [Sproul, R.C. (2023). *The Free Will Debate*. Seoul: Lifebook.
- Watson, Philip S. (2011). 루터의 반론. **루터와 에라스무스 : 자유의지와 구원**. 이성덕, 김주한 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 [Watson, P. S. (2011). Luther's Objection. In Rupp E. G. & Watson P. S. (Eds.),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Lee S.-D. & Kim, J.-H. Trans.). Seoul: Duranno Academy.]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성교육진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

라이프 성경사전 “성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393656&cid=50762&categoryId=51387>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인성”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83987&cid=42128&categoryId=42128>

표준국어대사전 “성품”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51b383b923d403ab7fe2e36df38cc85>